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알팍한 불심 달래기 보다는 공개 참회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불교계가 8월 27일 50만명 참여를 목표로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를 열기로 하자, 자칫 종교편향 논란이 반(反)이명박 기류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은 불교계와 교분이 두터운 인사들을 내세워 불심 달래기에 진력해 왔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 회장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태고종 등 불교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찾은 데 이어 본사급 사찰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박재관 국정기획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도 불교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조계종에서 정치인 면담을 일체 거절한 까닭에 국회 정각회장이 최병국 의원이 신행단체 대표 자격으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공개로 만났지만,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인도 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불교계의 입장이 단호한 까닭에 여권의 다양한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등 돌린 불심을 돌려세우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불심 달래기'가 스님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비쳐지는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어청수 경찰청

장의 참회 편지다. 어 청장은 "경찰 복음화 포스터 게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불교계에 큰 격정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조계종 종진 스님 등 300여 스님에게 편지를 발송했고, 전국 사찰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고위관계자들이 스님들을 찾아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이 같은 시도들이 8·27 범불교대회를 앞두고 범죄 회소화와 함께 퇴진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설상가상으로, 8·27 범불교대회 동행위원회는 정부가 대회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범불교대회 상임집행위원장 진화 스님은 8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시, 군, 구 경찰과 공무원들이 범불교대회 참여를 막기 위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교차별 행위를 참회하고 시정해도 부족한 정부가 대회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평화적이고 어법하게 병행될 불교대회에 앞서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책임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 많은 불자들이 다시 한번 농락한다면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람회는 하나님의 큰 선물...”

오현섭 여수시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복음박람회간증' 파문

“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경제박람회 뿐 아니라 '복음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유치한 오현섭 여수시장의 종교편향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된 '여수시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오현섭 여수시장의 간증'에 따르면, 개신교 집사인 오 시장은 여수기독교전교직선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수지역 내 15개 직장선교회를 이끌어왔다.

공직자 신분으로 개신교선교연합

회장직을 수행해 온 오현섭 시장은 “세계박람회 투표 현장에 가기 며칠 전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기도회를 열어, 박람회 개최가 확정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화 종평위는 8월 22일 여수시장에 보낸 '여수시장 종교편향 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오현섭 여수시장의 간증'에 따르면, 개신교 집사인 오 시장은 여수기독교전교직선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수지역 내 15개 직장선교회를 이끌어왔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여수시장의 공식사과와 언론을 통한 게재, 여수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에만 전념할 것을 서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엑스포로 만들겠다는 것은 오현섭 시장 단독 구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3월 개신교신자를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겠다는 성시화 계획을 구체화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로 구성된 복음네트워크를 결성했다. 7월 13일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와 3개시 성시화를 위한 2008 복음엑스포 대회'를 열고, 여수엑스포를 기독교 복음엑스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섭 기자



“어청수 청장 퇴진”

천태종 종교편향규탄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실행활동'에 동참했다. 8월 22일 천태종 기획국장 진철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금복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8월 22일 오전 7시부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진행 중인 단식농성에 참가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단식에 참여한 진철 스님을 비롯한 서울지역 천태종 신도 150여 명이 경찰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재원 기자

“상설기구·권역별대회 추진”

범불교대회 동행위원장 원학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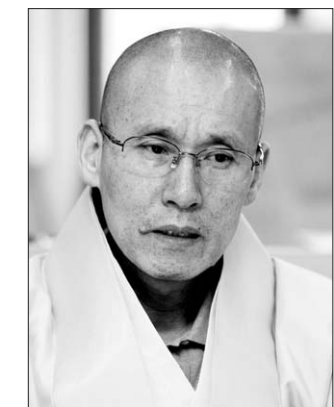
“최근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기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8월 27일 예정된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대회'의 상임동행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학 스님(사진)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8월 21일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불교언론 데스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학 스님은 이번 대회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근절을 천명하고 종교화합을 발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학 스님은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산하 27개 종단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정부 행사”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공직자의 종교 차별 근절 입법 조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불교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 서 권역별 범불교대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종교차별 행위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학 스님은 이웃 종교의 훼손행위에 대해 묵비대처나 조용한 대응



김성우 기자

이명박 정부 150일의 종교편향 사례

- ▲ 2008.2.22. 정부 주요인사 기독교 편중 인사, 불교계 비율은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 ▲ 2008.3.4. 김성이 장관 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기고로 논란
- ▲ 2008.3.8. 정장식 前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정장식은 포항시장 재임시 기관장 기독교인인 홀리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려다 적발(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인백 목은인사의 대표사례).
- ▲ 2008.3.16.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사와 청와대 예배
- ▲ 2008.4.1. 경남일보,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 서명운동 실시 -공약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특정 종교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공익성 훼손.
- ▲ 2008.4.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종교사학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 ▲ 2008.4.30.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실시로 물의 -MB의 개신교 편중의 종교적 코드 인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
- ▲ 2008.5.1. 주대중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
- ▲ 2008.5.8. 학교종교자유 문제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 2심 판결 패소 -서울고등법원(재판장은 강남 모 교회 장로), 대광고 강의석 군이 제기한 학교종교자유 판결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개신교 재단인 대광고학원측이 승소.
- ▲ 2008.5.15. 이명박 조찬기도회는 참석하고 '불교 흉대' 논란 -청와대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날 축전도 안보내' 구실, 靑 "1200개 사찰에 보냈다" 해명, 봉은사에 '대리시주' 했다 사과도.
- ▲ 2008.6.7.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훗날집회 참가자 사단법인 물의
- ▲ 2008.6.15.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 발언
- ▲ 2008.6.20. 김황식 대법관,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MB의 '고소영'이라는 종교적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사례.
- ▲ 2008.6.20. 국토해양부, '알고도' 교통정보에 교회·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
- ▲ 2008.6.23.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 대우하 포기 발언 직후 대우하 관련 발언 물의
- ▲ 2008.6.23. 경기여고교장, 학내 불교문화제 훼손 논란
- ▲ 2008.6.24. 어청수경찰청장, '제4회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 대성회' 광고 포스터에 사진기재
- ▲ 2008.6.28.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
- ▲ 2008.6.30. 경주초등학교 교사, 특정 종교 강요 논란
- ▲ 2008.7.11.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대상에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되었으나 전통사찰은 누락.
- ▲ 2008.7.29. 경찰-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걸론·검색 사건발생
- ▲ 2008.7.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교육감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특정종교시설에 지나친 편중
- ▲ 2008. 8.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학교현황 서비스에 전통 사찰과 대형 사찰들의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는 명칭과 함께 교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상세히 표시됨.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소개,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복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금을 캐는 광부는 목숨을 걸고 갱도에 들어갑니다. 불교 속에는 금보다 억 만 배나 더 귀한 보물들이 무더기로 함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목숨을 걸고 찾아나서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불 때마다 목숨을 건다는 귀명은 잘도 쓰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불교의 언저리만 소득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대승기신론을 썼고 그것을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승은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주옥같은 해설을 남기셨습니다. 이 해설이 동서양의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있는 불세출의 명저서 대승기신론 해동소라는 것입니다.

이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독보적으로 심층연구 강의하는 곳이 바로 원효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기 마음인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원효센터에서 일심에 대한 원효대사의 박진감 넘치는 해설의 숨결을 감동스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大乘起信論

海東疏·別記 8期 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6, 7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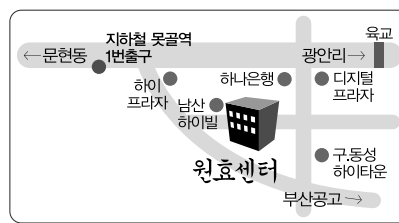
- 법 사 : 공파스님
- 개 강 : 9월 4일(목) 오후 8시
- 장 소 : 원효센터 智慧光殿
- 기 간 : 1년
- 교 재 : 무료 - 해동소(고려대장경판)
- 입학비 : 10만원 ■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법회 / 신행 중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 2부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6기 수강 중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반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7기 수강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8기 모집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 3부 : 일반산자, 기초교리 및 장엄법회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공파 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 2, 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 (051)611-3808 e-mail : zero-pa@hanmail.net ■ http://cafe.daum.net/wonhyocenter ※ 9월 4일(목) 오후 8시에 대승기신론 해동 소 공개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뚝골역 1번출구에서 부산공교방향·하니은행 뒷편